

기능별 숲가꾸기로 산림 공익기능 높인다

공익림 2천155ha 숲가꾸기 추진



전라남도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목재생산 △탄소 흡수량 및 물 공급 증가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및 산림환경 보전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워주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500억 원을 투입해 △경제림가꾸기 1천833ha △조림지 사후관리 1만 8천364ha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4천62ha를 추진하고 산림자원조사단 등 취약계층 산림일자리사업 127명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산림기술사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 운영으로 현장토론회, 실무교육, 사전 설계심의 추진 등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 장흥 안양면 공익림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시군 담당자 및 사업 수행자 30여 명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작업방법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또한 최근 산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안전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잘 가꾼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42% 증가하고 수원함양(녹색댐) 기능이 20~30% 증진되며, 뿌리 발달 촉진으로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그물망을 형성해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이는 등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20년 기준 259조 원에 이르고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기능 97조 6천억 원 △산림경관기능 31조 8천억 원 △산림휴양치유기능 30조 원 △토사유출 및 붕괴 방지 기능 37조 6천억 원 △산림정수 및 수원함양기능 27조 3천억 원 △산소생산기능 11조 6천억 원 등이다. /주대규기자

전남도, 견고한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은 힘

전라남도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정보를 보호하고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9일 디도스(DDoS) 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디도스는 대상 시스템에 과도한 트래픽을 몰아넣어 정상 작동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다.

훈련은 국가 핵심 행정망의 접속 장애와 해킹 사태에 대비해 비상 대응 능력과 시스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공격 상황을 재연, 공격팀이 전술적 공격 장비를 이용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대응팀은

고도의 보안장비를 통해 이를 탐지해 차단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진행됐다.

전남의 대표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각 분야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어느 때보다 큰 규모와 역량을 발휘했다. 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을 크게 높였다.

전남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며 더욱 견고한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대규기자

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56대 저공해조치 지원

엔진교체·전동화 개조·매연 저감장치 부착비용 등 12억원 투입 대당 최대 4322여만원...31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노후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총 56대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공해 조치란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말한다. 이 중 전동화 개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78~1979여 만원을,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26~4322여 만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당 692여 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사업공고(5월 3일) 전일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최초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문서 24(docu.gdoc.go.kr)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5월 31일이나, 기한

내 예산미소진 때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6월 문자로 개별 통보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차량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비싼 가격과 특수성 때문에 신차 구입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작으로 총 109억 원을 투입해 743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1546t으로 추산된다. /고흥석기자



광주시청에 퍼진 어린이들 가족과 함께 ‘함박웃음’

광주시는 어릴 적 지칠 줄 모르고 뛰놀던 기억을 되살리고, 어린이들이 재밌는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어린이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웠다.

강 시장은 어린이들과 공연을 관람하고, 풍선비전담 쌓기도 함께 즐겼다. 모범어린이 표창장을 수여하며, 어린이들

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강 시장은 “시청에 미래의 소중한 희망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기운이 가득해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오늘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365일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어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창장 수여자는 총 9명으로 장광표장 모범어린이 4명(임채윤·김환희·손도현·백준선)과 유공자 1명(이숙희), 시

장표장 모범어린이 4명(양새롬·나예성·김재은·정다현) 등이다.

이날 행사는 비눗방울, 마술, 청소년 케이팝(K-POP)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어린이 퀴즈쇼, 부모 팔씨름, 온가족 훌라후프 경연대회 등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날마다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매일 시청에 와서 놀고 싶다”며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고흥석기자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관계기관 합동 육·해상 동시

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 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대규기자

생명,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자리의 모든 것! 일자리통합정보망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

교육 훈련

AI 플랫폼

job.jeonnam.go.kr |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061)287-1142~3